

사 설

사찰을 문화중심지로

가을은 문화의 계절이다. 오곡이 풍성하게 익고 문화행사가 많아 문화의 계절이라고 한다.

오페라 '원효'가 불국사에서 열렸고, 경주관악산, 제23회 전승공예대전, 제17회 불교미술대전 등 미술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강백이 쓴 회화 '느낌, 극락같은'이 대각로에서 막을 올렸고, 영화 종교영화제가 기대를 한몸에 받으면 열린다. 제1회 세계문화엑스포도, 불교의 본고장인 천년고도 경주에서 두달간 열리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행사가 사찰단위로 열리고 있거나 열릴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면 그 근간에 흐르는 바탕문화가 불교문화임을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한다. 불교가 종교로서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지금까지 종교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끼친 문화사적 영향은 아주 뿌리가 깊다. 뿌리가 깊을 뿐만 아니라 이젠 이런 문화적 바탕을 떠나선 한국을 설명할 수 없게 된 그런 문화적 바탕을 지니고 있다. 바탕문화가 이렇고 보면 이를 바탕으로 면면히 이어져온 역사적 환경 또한 불교적 맥락을 떠나서는 가늠이 되지 못한다.

간 역사적 흐름을 면면히 이어져온 역사적 발자취, 그것이 바로 한국을 문화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교에 대한 대중들의 친근감을 들 수 있다. 불교가 초기에는 종교로 전파되어 들어왔지만 그것이 바로 생활의 바탕문화로 자리를 잡은 이후 역사적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부터 친근한 밀착감정을 쌓았다고 볼 수가 있다. 지금 다양한 종교가 도래하여 신자들이 늘고 있지만 그들의 밀착감이 되는 정서는 역시 불교를 바탕으로 오래도록 전해져 온 국민정서가 불교적이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런 바탕문화적 토

양과 오랜 불교사적 역사의 흐름, 그리고 친숙한 정서 등은 한마디로 불교를 앞으로 증흥시켜나갈 수 있는 큰 자산이 아닐 수가 없다.

지금까지 불교문화를 보면 종교적 전유물이거나 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독점물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많이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들은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 문제도 한 번쯤 짚어볼 일이다. 흔히 21세기는 정보의 시대라고 한다. 정보문화가 21세기의 흐름을 주도한다는 뜻이다. 교통 특히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의 교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변동된 사회문화적 환경을 접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변동의 세기를 맞기엔 우선 우리들의 의식부터 적응할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불가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21세기를 맞으면서 구태의연한 의식과 적응양태를 지니고 살아간다면 필시 낙오될 것은 명백하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 위해서 박제된 문화재는 영적인 접화가 필요하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비록 천년전에 만들어져 그 주인은 지금 없지만 혼을 불어넣는다면 그때의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갖고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박제된 문화유산을 생명과 함께 대중앞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생활 속에서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불교문화행사를 통한 넓은 의미의 포교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양한 가치 체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21세기인 만큼 불교를 알리고 전승하고 실천하는 방편도 다양하게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다양성의 수용을 불교문화행사를 풍성히 하는 것으로부터 그 출발로 삼아보자.

"훼불방지 담당경찰관 배치"

경승단 연수, 결의문 통해 촉구 지역사암-경찰 협의기구 추진

경승단(총재 월주, 조계종총무원장)은 23~24일 서울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연수회를 열고 종교편향 및 훼불 방지에 적극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전국에서 1백80여명의 경승들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에서 경승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족문화 수호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종교편향 및

훼불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 △훼불 방지를 위해 각 경찰서에 담당 경찰관 배치토록 촉구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포교원은 올해 안에 지역사암 연합회와 경찰서와의 협의기구인 '교경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종교편향 및 훼불사태 실태와 대책'(원혜 포교

원 포교부장) '경찰조직 및 직무 이해'(이상현 동국대 사회과 학대학장) '경찰포교 활성화 방안' 등의 강의와 '종교편향과 훼불 대책' '경승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분과토론으로 진행됐다.

원혜님은 강의에서 "훼불사건이 급증하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종단협의회 차원의 기구를 구성해 재정과 행정지원을 통해 훼불사건의 예방과 대응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의 종교편향 방지를 위해 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특정종교편향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포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김진홍포교사(서울경찰청 경비과)는 "전국 경찰서에 1천1백여명의 경승을 위촉할 수 있으나 5백80여명만이 활동하고 있어 개인교의 질반에 그치고 있다"며 △포교인력의 보강 △포교방법의 개선 △경찰포교의 전문화를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입재식에는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과 경찰청 서성근 경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경승단은 23~24일 연수회를 갖고 종교편향과 훼불방지에 적극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조계종 총무원 인사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22일 총무부장에 부산 내원정사 주지 정련스님, 7. 기획실장에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지홍스님, 사회부장에 사서차장 일희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총무부장 정련스님은 58년 부산 선암사에서 석암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63년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총무부장 - 정련스님
기획실장 - 지홍스님
사회부장 - 일희스님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동아대 부산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스님은 부산불교유치원 원장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유아교육과 불교포교에 기여한 공로로

신임 사회부장 일희스님은 78년과 80년 월주스님과 자운스님에게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수료했다. 총무원 사회국장 겸 사서실장을 지냈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opia.com)



국립공원 야영시설

10월부터 예약제
사찰-개인시설은 제외

10월 1일부터 국립공원의 야영장 대피소(산장) 등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1일 "공원내 숙박·체류시설에 한꺼번에 많은 이용객이 몰려 안전 등

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10월부터 13개 대피소와 34개 야영장을 대상으로 예약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시기는 7.10~8.20, 10.1~11.14, 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이다.

시설이용자는 해당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사용하기 5일 전까지 팩스나 전화, 하이텔로 예약해야 한다. 사찰을 비롯해 개인이 운영하는 체류시설은 예약제에서 제외된다.

정성운 기자 (yhllee@buddhopia.com)



24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린 '불교방송후원회 확대개편 발족대회'에는 신임회장 월주 조계종총무원장, 인목 태고종총무원장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불교방송후원회 확대

회원 1만명 확보키로... 도후스님 1억 기탁

불교방송 후원회(회장 월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는 후원회 조직 확대개편에 따라 새 출범을 다짐하는 "불교방송 후원회 확대개편 발족대회"를 24일 오후 3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회장으로 추대된 월주 조계종총무원장을 비롯해 후원회 부회장 인목 태고종총무원장, 성초 진각종 총리원장, 운영위원장 도후 불교방송재단이사장, 성낙 불교방송사장, 박철원 자민련 불자회장, 한국불교인문학회 신광식회장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월주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방송은 그동안 방송을 통한 전파 포교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후원회의 확대 개편을 통해 경제학과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불교

방송이 정상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이 적극 후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22일 불교방송 후원회 1억 원을 후원회에 기탁한 운영위원장 도후스님은 "후원회 활성화를 통해 전국 방방 곳곳에 부처님의 법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덕신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이 후원회 사무차장 직무대리로 임명됐고 생용화재해상보험(주) 명호근사장, 총지화 총지종 총리원장, 일출종 해중 총무원장 등 30여명이 운영위원에 위촉됐다.

한편 불교방송 후원회는 10월 1일부터 1만여명의 후원회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opia.com)

종단내 괴문서척결 '결의'

조계종 본사주지모임

민중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회장 지산)은 18일 통도사에서 월례모임을 갖고 종단내 괴문서 척결과 통도사 안 인터체인지 이전 반대, 성원기업 살리기 동참 등을 결의했다.

교구본사 주지모임은 "최근 종단내 부적 늘어난 각종 괴문서가 혼란과 갈등구조를 형성해 승가화합을 깨뜨린다"고 지적하고 "괴문서 작성자와 발상자를 발본색원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통도사 인터체인지 이전 계획과 관련 교구본사 주지모임은 "통도사 인터체인지를 울산광역시 지역으로 옮기려는 것은 주님과 통도사 대중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당국의 시정을 촉구했다.

성원기업과 관련 주지모임은 "성원기업은 영세민과 어린이·고아원·불우노인복지 등에 상당한 무주상보시를 해왔다"며 성원기업의 화의신청이 당국에 받아들여지도록 불자들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 및 시공

- ◆ 서풍짜리 기와 때문에 천년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 사찰기와 재보수 이전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기와, 풍산 한식 동기로 보존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 대표 최 대 용 회장
成源産業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H.P. (011)445-7811 야간 (02)502-7811,7827

현대만평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철없는 우리선생님

10년기도회향 및 불사낙성식

제2회 라야 어린이, 청소년 포교대상 시상식
 신흥사 포교 공로대상 시상식
 소년 소녀 가장 장학금 전달

수련원 건립의 원을 세우고 시작한 두문불출 10년 기도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넘어 그 회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무사히 회향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배려를 해주신 교계의 큰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장엄한 불사가 이루어지도록 전국에서 물이물어 찾아와서 정성어린 시주를 해주신 수많은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처님의 크신 가피 한없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건축에 기울였던 힘을 보태 앞으로는 내실있는 불교수련과 전법활동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회향법회에 참석하시어 크나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신흥사·청소년 수련원
 주지 오성일 합장

회향법회 안내

- 중 명 : 고산 큰스님
- 일 시 : 불기 2542(1998)년 10월 11일(일) 새벽 11시
- 장 소 :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 42-1 신흥사·청소년 수련원
- 전 화 : Tel: 0339) 357-2695, 3916 Fax: 0339) 357-8687
- 교통편 : (좌석버스) 수원역 400-1, 999번 신흥사 하차 (대절버스) 1. 수원 역전) 오전 8시 출발 북문농협앞 2. 용인역 광장 시계탑 앞 7시 출발